

## 1) 성음악과 전례

성음악은 본질적으로 전례와 깊은 관계를 가지므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이후의 성음악의 향방은 전적으로 전례의 변화와 깊은 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즉 스크린으로 미사를 시청하거나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미사전례 양상의 변화로 인해 성음악의 양상도 변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음악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으로 전례에 대한 논의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성음악에 관해 항상 본질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성음악은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Sacrosanctum Concilium, 이하 「전례헌장」) 112항이다. 공의회는 같은 항에서 “성음악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또는 한마음을 이루도록 북돋아 주거나 또는 거룩한 예식을 더욱 성대하고 풍요롭게 꾸며 준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모두 성음악의 목적중 하나인 “신자들의 성화”(112항)와 관계된 것들이다. 따라서 성음악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같은 헌장 10항에서 밝히고 있는 전례의 역할, 곧 “주님과 인간의 계약이 성찬례에서 새로워져 신자들을 그리스도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이끌고 불타 오르게”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성음악은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공의회는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성음악은 전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그래서 우리는 전례 안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전례를’ 노래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의회는 성음악을 전례의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전례헌장」 14항) 전례를 개혁하고자 했던 공의회 노력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 세기동안 전례운동이나 체칠리아 운동, 그레고리오성가 복원운동과 같이 성음악계에서 이루어져 온 여러 개혁 운동들이 바로 이 명제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의 새 시대에 대한 성가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으로 전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다.